

이성환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이성환 교수는 국내에서 AI, 그 중에서도 뇌공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연구자이다. 이 교수의 연구는 AI가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기계가 인체의 물리적인 행동을 대신하고, 인간이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 머지않았다는 것이 이 교수 생각이다.

이 교수는 뇌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뇌공학은 이름 그대로 '뇌를 공학적으로 운영하는 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사람의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컴퓨터가 흉내낼 수 있도록 연구함과 동시에 뇌 질환을 진단·예측하는 법을 공부한다. AI 시대의 핵심 학문으로 꼽힌다.

이 교수의 20대는 AI와 거리가 멀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학부생 시절 계산통계학을 전공하며 비정형 데이터 계산법을 익혔다. "1980년대만 해도 인공지능은 상상 속 이야기였다. 대학에서 통계와 전산에 대해 공부하며 20대를 보냈다. 대학원에 가서야 패턴인식이란 분야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패턴인식이란 인간의 시·청각 인식 활동을 기계가 대신 하도록 하는 학문을 말한다. 미래 AI 발전 속도를 좌우할 기술로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에 참여 중이다. 전 세계 5만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국제패턴인식학회라는 학술단체를 만들어 교류 중에 있으며, 이 교수는 국제패턴인식학회 이사도 재임 중이다.

[시사저널 "AI 석학 릴레이 인터뷰"에서 발췌]

민상렬, 2017년 5월